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1, 2021 Vol. 786

2022년 제41차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LA서 개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된 2022년 제41차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실행위원회 모임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총회장 김경도목사)는 내년 연례 총회를 6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미주남침례회 한인 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7일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목사)에서 2022년 미주남침례회 한인 총회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 대의원 800여명, 가족 600여명 등 총 1천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총회를 예상했다.

총회장 김경도 목사는 “내년 41차 총회는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함으로써 팬데믹에서 벗어나 회복과 축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우리 총회는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내년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되고 함께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회를 준비하는 남가주지방회 김영하 목사는 “매년 개최되는 미

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는 침례교단 목회자들과 가족들, 교회 지도자들의 연중 가장 큰 모임”이라며 “한인 총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해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실행위원으로 LA를 방문했던 안영배 목사(시카고 아가페 교회)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함께 은혜받는 총회를 위해 설렘과 기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교회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계약을 맺는 기쁜우리교회와 글렌데일장로교회

기쁜우리교회 10월 30일부터 글렌데일장로교회로 이전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오는 10월 30일(토)부터 글렌데일장로교회(125 S Luise St, Glendale, CA 91205)로 이전한다.

2017년 창립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이룬 기쁜우리교회는 약 4년 동안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처치(United Community Church)와의 관계를 마무리 하고, 10월 30일부터 글렌데일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기쁜우리교회는 글렌데일장로교회와 교회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이전이 뉴노멀의 시대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김경진 목사는 “기쁜 우리교회가 주님의 은혜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기쁜우리교회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차세대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며,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비전으로 하나되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쁜우리교회가 이전하는 글렌데일장로교회에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년부와 중고등부, EM 등 교육부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또 최신 음향 시설과 넓은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 성도들이 예배와 각종 모임을 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백신 미접종자 출전 정지’ 대학에 美 법원 “헌법적 권한 침해”

미국 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백신 의무접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제6 항소법원은 7일 웨스턴 미시간 대학(Western Michigan University)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를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하급심의를 지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백신 의무화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위해 학생 운동선수들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선수들의 대학 운동 경기에 참여를 불허했다”며 “종교적 신념

을 포기함으로써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대학이 그들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부담을 주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8월, 웨스턴 미시간 대학 소속 운동선수 16명은 학교 이사회, 체육 이사, 그리고 기관 행정성 담당이사를 상대로, 학교가 그들의 운동 경기 참여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미시간 서부 지방 법원이 백신 미접종 선수 16명에게 운동 경기 출전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학 관계자들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이를 거부했

다.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인 데이비드 칼번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제6 항소법원이 선수들의 종교적 신념을 입증하고, 계속해서 팀의 일원이 되어, 팀원들과 함께 안전한 방식으로 대학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쟁을 펼치게 된 데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대학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들을 지지하기 위해 협력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체육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백신 정책은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즌 내내 중단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은 계속 따를 것이며, 관련된 학생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콜로라도, 인디애나, 크레이튼 대학교에서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다.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 안슈츠 의과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불허한 대학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휴학을 권고했으며, 교직원들은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 면제를 요청한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학생들은, 학교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지지한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네브래스카와 애리조나에 캠퍼스를 둔 예수회 산하기관인 크레이튼 대학교(Creighton University)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학생 4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예약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y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www.marhlaw.com

“세 장소 이전” E-mail: marhlaw@yahoo.com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은행ruptcy
Bankruptcy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실력**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맡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대화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가 신뢰는 저희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원하트 미니스트리, 이웃 돕기 찬양예배 “with NEIGHBORS”

10월 23일(토) 저녁7시, 다섯번째 심플워십

선교단체 코이노니아 x 원하트 미니스트리

당신의 작은 헌성이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도시락으로 전달 됩니다



문화사역단체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 이하 원하트)는 오는 10월 23일(토) 저녁 7시, 이웃을 돕는 찬양예배 ‘심플워십’을 진행한다.

원하트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집회를 계획했다.

심플워십의 모든 헌금은 독거노인을 돕는 ‘코이노니아’(대표 박종희 목사)를 지원하게 되며, 헌금모금은 체크와 현금 외에도 Venmo, Zelle, Paypal, GoFundMe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이노니아는 독거노인 사역, 홀리스 사역, 교도소 사역 등 남가주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집회는 허지애, 박지은, 이정희, 종유석 등 남가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찬양사역자가 나서 은혜로운 찬양을 전달 예정이다.

플러튼에 위치한 뉴송 스튜디오(1521 E Orangethorpe Ave. Suite A 2F, Fullerton 92831)에서 드러질

심플워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Youtube ‘Oneheart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된다.

한편 심플워십은 온라인을 비롯한 간편한 예배에 익숙해진 이 시대를 향한 원하트의 도전의 목소리로, 예배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simple(단순한) 예배, simple(간편한)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예배의 모습을 지향하는 예배다. 김동욱 기자

제9회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10월 25~27일 열린다



대회장인 기독교선교햇불재단 유승현 원장 d3기독교선교햇불재단

유튜브 ‘햇불재단TV’ 통해 스트리밍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원장 유승현)이 ‘디아스포라, 그 시작(diaspora, the Beginning)’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유튜브 ‘햇불재단TV’ 스트리밍)을 통해 ‘제9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해외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경험했거나, 디아스포라로서 현지 한인들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나선다.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를 비롯해, 미국의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저녁집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또한 미국의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독일의 이찬규 목사(프랑크푸르트 한가음교회), 후주의 진기현 목사(주안교회)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강 불레슬랍 목사(타슈켄트 아가페교회), 중국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서영희 목사(한중사랑교회)와 북한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탈북민 김성근 목사(한나라은혜교회), 복음의 전함 대표로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정민 이사장, 그리고 디아스포라 대회를 섬겨 온 이경석 목사(기독교선교햇불재단)가 주제강의 강사로 나선다.

그 외에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랜선 찬양과 예배의 순서자로 각각 참여한다.

대회 첫째 날에는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해줄 국내 정상급 복음성가 가수들이 함께 하는 ‘힐

링 콘서트, In His Time’도 준비된다. 송정미, 한용재, 민호가, 지미선, 김동욱 등 다섯 명의 복음성가 가수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은혜롭게 찬양한다. 자신의 곡과 찬송가 등을 솔로와 듀엣, 합창 등으로 연주해 코로나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게 된다.

둘째 날부터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을 영상화한 영화 ‘일사각오’가 신청자들에게 무료로 스트리밍된다. 이 외에도 여러 교계 인사들이 순서를 맡아 섬겼다.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재 목사, 거제고현교회 박정곤 목사, 햇불트리니티 이정숙 전 총장,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 북기총 회장 김관능 목사, 유호교회 김희종 목사, 주본향교회 박남수 목사 등이 순서자로 함께 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헌신하는 헌신 서약을 한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이들을 위한 파송의 시간을 갖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8회 대회까지 2,147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대회장인 유승현 원장은 “전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첫날인 25일 한국 시간 저녁 7시부터 유튜브 ‘햇불재단TV’를 통해 사전 녹화된 영상이 스트리밍되며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가 자막으로 제공된다.

등록은 홈페이지 www.diaspora.co.kr 접속 후 가능하다. 김진영 기자

오픈청지기재단, 수익 10% 사회환원 프로그램 올해도 시행

www.openstewardship.com

우리 함께 - 손잡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1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과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 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커뮤니티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15일부터2021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

와 오픈청지기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의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남가주와 북가주, 그리고 텍사스주 달라스와 캐롤턴 지역에서도 올해 지원단체 모집에 나선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24일이며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비접촉 접수를 받기로 해 우편으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과정도 현장 방문 보다는 전

화 및 화상 등 다른 경로로 지원 단체와 소통해 지원 프로그램이얼마나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지를 체크하게 된다.

이러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치고 지원금 전달은 내년 2월말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도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심사하며 특히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잘 적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수혜단체들은 지난해 지원금의 사용내용을 자세히 제출해야 하며 신규 신청단체의 경우도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사용 계획을 잘 수립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서에는 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 방법, 그리고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문의 : 213-593-4885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립니다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왠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눌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 일정

- 10월 22일(금) 오후 7:30
- 10월 29일(금) 오후 7:30
- 11월 5일(금) 오후 7:30
- 11월 12일(금) 오후 7:30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김진영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교회
The Lord's Church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미성대 이상훈 총장 “글로벌 리더십 갖춘 선교적 리더 양성할 것”

국내의 선교학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상훈 총장이 미성대에 취임 한지 2년이 지났다. 이 총장은 취임 직후 맞이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도전 앞에 ‘선교적 리더 양성’과 ‘글로벌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시대에 응답할 신학 교육 마련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특히 팬데믹 시대의 돌파구를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에서 찾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유연성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뉴노멀 시대의 신학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이하는 일문 일답.

-총장 취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미성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미주 한인신학대학 가운데 미성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작고 강한 학교’이었습니다. 작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리더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캠퍼스를 가데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학사 행정을 위한 사무실, 비대면 강의를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를 갖췄고, 웹사이트(<http://aeu.edu>) 개편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ABHE의 승인을 받아 한인 신학교 최초로 100% 온라인 리더십 철학박사 과정(Ph.D in Organizational and Global Leadership)을 시작했는데요. 선교적 리더 양성을 위한 특성과 대학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맞은 팬데믹이 당혹스러웠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세계는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중심으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미성대도 매일 새롭게 발전하는 온라인 기술에 적응하면서 학생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는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수진을 미국 유수의 강사진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 겸임 교수님들을 포함해 32명이 있는데,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

전세계 하드웨어 시대 지나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
선교학 분야 최고 강사진 구성, 글로벌 교육 환경 마련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하는데 중점 둔 교육 실현

교회 3.0, 오가닉 처치 등 수많은 저서와 강연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닐 콜(Neil Cole), 선교적 교회 운동의 저자 J.R. 우드워드(J.R. Woodward), UCLA 등 우수한 대학에서 가르쳐 온 케빈 크랜트(Kevin Grant) 등이 강의합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 강의와 피드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전문가들을 통해 최고의 신학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글로벌 대학을 향한 도전이 인상 깊는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100% 영어 목회학 석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남아공, 잠비아, 우간다, 네팔, 필리핀, 스페인에서 현지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조수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추천 받아서 100% 장학금으로 교

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보내는 선교’와 ‘단기선교’가 중심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인 사역자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글로벌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교회가 후원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는 신학과 사역을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는 4차 산업이 주도하는 엄청난 변혁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신학교육은 6-70년대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물려올 텐데 우리는 어떠한 선교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선교지에 차세대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온라인 시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효율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과

크고 작은 모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와 한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인신학교이기 때문에 늘 한국 교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신학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 보다는 사역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한국 교회 갱신과 발전에 이바지 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재교육이 필수인데 한국 코칭협회와 MOU를 맺고 리더십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이 선교적 교회 관심이 많은데 코칭과 멘토링에 대해서 특성화된 한인 신학교가 전문한 실정입니다. 목회와 사역 리더십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주 한인교회들을 위한 2세 사역자 양성이 시급한데, 미성대의 조수아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교육 환경이 그들에게 적합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2세 학생들 역시 100% 장학금으로 50%는 학교에서, 50%는 교회에서 지급하며 교회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미성대가 어떤 학교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리더들의 안목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리더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룹에도 교회 리더들은 변화의 시대에 대해 둔감하고 현실 인식도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개인이 시대적 부르심과 질문 앞에 선교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가 되어 미주와 한국, 제 3세계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단지 학위를 주고 졸업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운동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와 영향력,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와 교회, 선교 기관과 단체가 네트워크 되어서 협업으로 선교적 리더가 배출되고, 이를 통해 선교의 큰 물결을 일으키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동욱 기자

2021 Heal Our Land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Pray for revival! Pray for America! Pray together!

Oct 29 Pray together 2021

2021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2021년 10월 29일(금) 7:30~9:30(PM)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 관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주 최 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은혜한인교회

참가단체 각지역 교협, 각지역 목사회, CMF, Soon Movement, 시온산재단, KACC, 세기모 미스바기도운동, 미주 한인재단, America 한인재단, OC장로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현장중계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 유튜브 방송

당일 교회 금요기도회에 교회별로 영상중계(YouTube :2021다민족기도회)를 통해 함께 동참해주시요.

문의: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6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멕시코의 선교부흥을 꿈꾸다”

어느 주일 늦은 저녁, 신학생들은 다음 날부터의 새 주...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자의 선교 비전을 나누었다. 우리 멕시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강의실 입구 벽면에 대형 세계지도를 붙였다. 10/40...

이번 여름 방학을 마친 후 4개월여 만에 신학생들이 9월 학기를 시작하려고 다시 학교로 모였다. 올해도 15명의 신입...

이미 하나님은 멕시코 청년들에게 세계 선교 부흥의 주역이 될 꿈을 심어 주시고 계심을 깨달았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바울이 걸었던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사도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며 로마 도로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로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자랑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로마제국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성기에는 113개 주에 연결된 372개의 고속도로가...

로마의 도로망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도로망의 가장 중요한 활용은 군사용이었습니다. 전시에 로마군은 도로망을 활용했습니다.

로마고속 도로 중 가장 먼저 건설된 고속도로는 아피아 가도(Via Appia)입니다. 기원전 312년 로마 집정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가 건설한 도로입니다.

로마고속 도로 중 가장 먼저 건설된 고속도로는 아피아 가도(Via Appia)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피아 고속도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시대에도 도로가 많이 건설되었고, 로마시대에도 도로들이 많은데 왜 이 아피아 고속도로가 중요한가요? 아피아 가도(Via Appia)는 당시 일반도로가 갖지 못한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피아 가도는 포장도로였습니다. 비만 오면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병들의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갈 혹은 포석으로 포장했습니다.

셋째 배수입니다. 배수가 잘되지 못하면 도로 중앙이 볼록하게 건설되었고, 도로변 배수시설도 건설했습니다. 넷째는 가능한 직선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외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어인 헬라어 활용, 속국...

의 문화를 존중하는 로마의 문화정책 그리고 발달된 로마의 도로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여건(Infra)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선교 전략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도로 즉 에그나티아(Via Egnatia)가도를 통해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기원전 145년 마케도니아 총독으로 부임한 나이우스 에그나티우스(Gnaeus Egnatius)가 명령함으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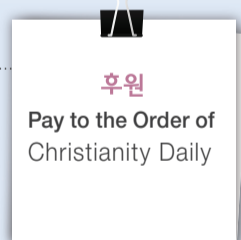
로마에서 비잔티움까지 연결된 이 도로는 시설이 탁월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입니다. 우선 도로 폭이 6m에서 9m로 광장한 규모였습니다. 특히 중앙 분리대가 있었고 상대방 체적에 맞지 않기 위해서 좌측통행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차를 탄 사람들은 하루에 50마일(80Km)을 이동한 후에는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마일 지점마다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들(여관, 식당, 목공실, 대장간, 우마를 위한 동물병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2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입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es a large bottle of capsules,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blood sugar control, and a 'New Product' banner. Includes a list of ingredients and a price list for various quantities.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포스트 코비드 시대, 편리함과 본질 바꿔선 안돼”

[결론]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14)

본지는 웰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한 교회 성가대 찬양 모습

지난 13회에 걸쳐 필자는 역사의 진실앞에 오늘의 예배와 찬양의 현실을 조명하여 보았다. 역사속에 나타났던 예배와 음악을 통해서 본 오늘의 예배 현장은 본질의 정체성을 잃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다소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코비드가 주는 하나님의 역설의 선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와 음악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많이 발견해야 한다. 흥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이 살아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 심한 로마의 학정 속에서 살아남아 예배를 지킬 수 있었던 힘, 종교개혁자들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표호 앞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며 예배를 개혁했던 힘. 여기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험을 통한 저항(Resistance)이었다.

모험이란,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의 모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냐가 된다고 하는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1898-1986)의 말처럼 모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하고 그 모험을 통한 저항의 힘은 모두를 대표하여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말을 빌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그 동기에서 나타난 힘이 되어야 그 효력을 크게 발산시킬 수 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예배와 음악을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여러 이혼들을 두고 이제는 결정해야 할 두 갈림길에 서있다. 시대적 상황에 의한 수용이나, 아니면 본질에 의거한 저항이냐! 우리가 분명히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편리함을 좇아 편리함과 본질을 바꿔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필자는 이 연구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예배와 음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교육기관에서 앞

로 전개 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교육에 대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하며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논고를 마치려 한다.

1. 예배음악 신학의 정립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와 음악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상황과 조건에 쉽게 흔들린다. 특히 코로나가 그것을 더 크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배 속에서 음악이 악세사리로 전락하거나 옵션이 되고 삭제가 되고 때론, 예배에서 음악을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음악적 여러 다른 생각들로 인해 교회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심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상황까지 치닫고있다.

이렇게 되는 큰 요인은 교회음악인들만에 올바른 예배와 음악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데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과정에서 그리고 예배속에서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은 그 안에 분명한 예배와 음악 신학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성서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기초 안에 예배와 음악 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에 교회음악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예배와 음악 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교회음악을 공부하는 재학생들이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신학과 프로그램과 협력한다.

첫째, 성서적: 성서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성서학과 교수에게 성경에서 나타난 예배와 음악에 관한 강의를 요청한다.

둘째, 신학적: 예배와 음악의 신학적 뼈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직신학 수업에서 교회론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주실 것과 신학적 측면에서 예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길 담당 교수에게 요청한다.

셋째, 역사적: 교회사, 교회음악사 등의 강의를 기초로 해서 예배음악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학습 -(카톨릭, 유대교, 정교회 예배) 을 통해 역사적 예배음악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음악의 현장인 지역교회의 지도자들 및 교회음악 지도자들을 상대로 현대 예배 음악의 위와 나가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간다.

- 1)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예배와음악에 관한 홍보를 한다.
- 2) 지역사회 교회음악지도자들 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포럼을 갖는다. (각 분야: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분야의 전문 신학자 초청)

2. 교회음악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속에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역들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은 당시의 현대 음악과 중세로 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악을 잘 조화시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통합 음악을 개발 했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사역자는 현대와 전통음악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내와 교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운다.

첫째, 커리큘럼 조정: 클래식과

컨템포러리를 조화롭게 혼합해서 과목을 일부 조정한다. 지휘, 혹은 찬양사역 전공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과목과 밴드 디렉팅과목의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절한다.

둘째, 음악 디렉터 삼: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거나, 밴드 앙상블 그룹을 인도 및 체임버 앙상블을 인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훈련시킨다.

셋째, 작곡, 편곡 능력 습득:커리큘럼 안에 이 과목을 첨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작,편곡 능력을 키우게 한다.

넷째, 미디어 기술 습득: 영상과 오디오 편집, 사운드 엔지니어링 등 미디어에 관한 기본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지역 교회 음악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마스터 클래스 개최 한다.

1) 음악 디렉터들을 위한 지휘 마스터 클래스 찬양인도자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합창 앙상블을 지도할 수 있는 지휘기술, 리허설 기술들을 익히게 한다.

2) 음악 디렉터 들을 위한 밴드 디렉팅 마스터 클래스 찬양대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밴드 앙상블을 디렉팅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한다.

3) 음악 디렉터들을 위한 작, 편곡 마스터 클래스 간단한 편곡, 오케스트레이션, CCM곡을 작곡하기 위한 작, 편곡 기술을 익히게 한다.

4) 음악 디렉터 들을 위한 미디어 기술 마스터 클래스 교회음악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상, 음향기술들을 습득하게 하여 전체 교회음악을 디렉팅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특출한 음

악인 양성

교회음악인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 요소는 실기적 음악 능력과 지도력이다. 이를 위해 교내와 교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

첫째, 학생 능력에 잘 어울리는 실기교수를 선정한다.

둘째, 실기적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도록 한다.

셋째,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 실기 분야의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한다.

음악이라는 도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예술이고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것이다. 이것을 극대화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음악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 요소는 실기적 음악 능력과 지도력이다.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의지 안에서 보석처럼 담겨있는 그 소중한 진리들을 맘껏 드러내는 교회음악인이 되어야 한다.



윤임상 교수
웰드미션대학교

기독교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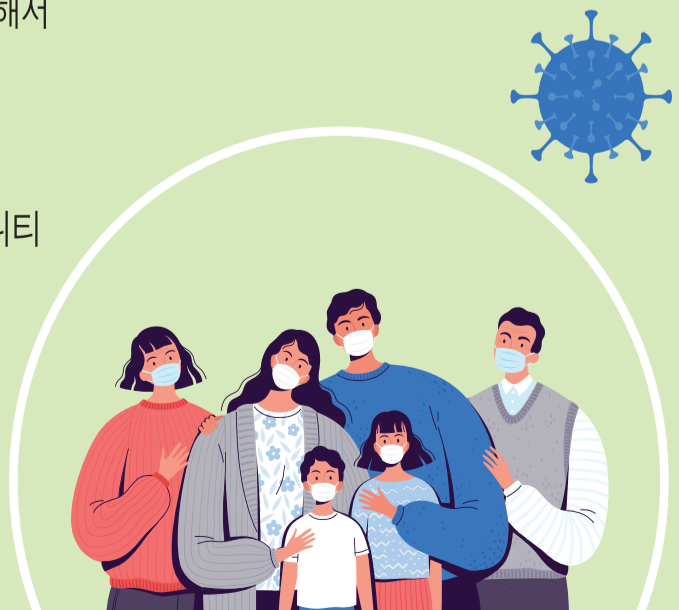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한국 대면예배, 백신 접종 여부 수용인원 10~30%까지 허용

4단계전 10%·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 한교총 "종교시설에 과도한 제재원칙 고수"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 기간 적용될 종교시설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단계 지역 대면예배의 경우 기존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가령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예배당에, 기존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만 들어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 시 최대 1천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백명(10%)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포함시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종교시설 방역 기준 완화에 대해 이날 논평을 발표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그러나,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방역당국에서는 공연



사랑의교회가 과거 예배당 좌석 수의 10%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 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일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

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년여 긴 기간 동안 각고

의 인내로 방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기간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정성진 목사 "교단장 되는 것 두려워해야"



정성진 목사는 "이미 한국교회는 맘모니즘에 물들었다. 교회의 크기는 곧 헌금의 크기와 연결되고 그것이 힘이 된다"고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포럼서 강도 높은 쓴소리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이 상실됐다. 코로나19 이후 작은교회부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 이사장)가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 목사는 15일 한국교회건강연구원(원장 이효상)이 개최한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포럼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주문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목사는 "코로나를 거치며 기독교가 세상에 '무례한 기독교'로 비쳤다. 자신의 믿음만 생각하고, 사회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한 '공교회성의 상실'이 엄청난 타격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한국교회는 맘모니즘에 물들었다. 교회의 크기는 곧 헌금의 크기와 연결되고 그것이 힘이 된다"며 "그 다음, 자리를 가게(육신 내계) 된다. 맘모니즘에 물든 교회는 계급주의와 연결된다. 대형교회

를 성공하면 총회장이 된다. 하지만 늘 결과는 좋지 않다. 교단장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풍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교회에선 당회가 모든 것을 전횡한다.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이 장로님들께 전염된다. 계급을 타파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회의를 잘 해야 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총회장은 사회자 이상 아무것도 아닌데, '한 마디 해도 뉘니까'라고 한다. 겸손한 총회장이라면 단상 아래서 내려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회의법을 아는 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교단 신학교에서 설교만 가르치는데, 실은 회의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칼빈과 루터가 남긴 유산에서 교회 운영의 원리는 옳고 설교만 강조된다. 예배 집합이 금지되고(목회자의 입에) 마스크를 씌운 하나님의 뜻은 설교가 과잉됐다는 것"이라며 "설교를 듣기만 하고 소화는 못 시키니 영적 비만, 위장장애가 걸렸다. 목회자들이 주일 낮 설교만 전하고 외에는 성경

읽기, 묵상, 스스로 큐티하게 하는 교육방안의 전환이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또 "노회와 총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개혁해야 한다. 선거제도도 타파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야 한다. 아예 선거운동을 못하게 만들어야 살아있는 조직,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했다.

그는 "(예장 통합의 경우) 지역적으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회회가 돌아온다. 총회장(노회장)의 꿈을 꾸면 5년은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 5년 해서는 잘 안 된다. 두 번 하면 10년이다. 10년 20년 전부터 (수장을) 꿈꾸니 영적 타락이 온다. 선거에는 선거꾼이 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표를 얻을 수 없다. 명예를 바라지 않는 풍토, 명예를 부끄러워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연합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연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힘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야합이 일어난다. 교회는 힘 빼기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은혜의 여지가 있다. 내가 다 갖추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어디 있나. '손해 보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이익집단, 로비스트나 할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개신교 연합기관이라면, 교회 건축에 대해 500석 이상은 지을 수 없게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지역교회가 피해를 본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정답이다. 300명은 대형교회, 1,000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는 분할해야 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고명진 기침 총회장 "복음 회복과 영혼 구원에 힘쓸 것"



기침 총회 신임총회장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유튜브 캡처

13일 제77대 의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고명진 목사의 취임 기념 예배가 13일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에서 열렸다.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감사예배에선 한국교회총무협의회장 엄진용 목사의 대표기도, 고루다 교수의 특송에 이어 이동원 목사(지구교회 원로)가 '깊은 데로 가라'(누가복음 5:3-4)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새로운 교단의 리더십을 축복하는 날이다. 리더십은 리더(Leader)와 심(Ship)의 결합, 곧 선장이라는 뜻이다. 고 목사와 임원진은 한 해 동안 침례교단을

이끌 것"이라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허탈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과거의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했지만 어떤 결실도 얻지 못했다"며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것이다.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데서 잡는 게 통상인데,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고 했다.

신임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3400여 개 교회의 대표를 맡아 이끌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중보기도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중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회장 사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했다.

이어 "제77대 임원진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교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내 관심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하는 데 있고, 과거보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겠다"고 했다.

류정필 교수의 축가에 이어 다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말은 본분을 부른 뒤 기침 증경총회장 오관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노형구 기자

202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주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합의성당: 조영호 목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3,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nstitute@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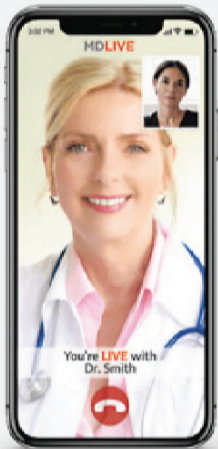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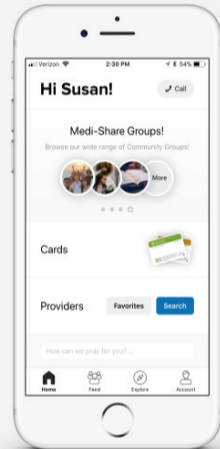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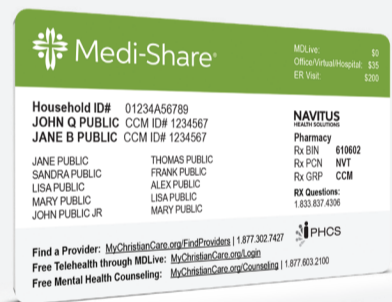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메디세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침례 순결하고 스나우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하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주요증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인2세를책임지며, 이인이가정을치로하며, 선교영광을증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ast 교차)
T. (213)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쪽목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점심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점심예배)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점심예배)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 생명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증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주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주일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정년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2:00
유증고등부 예배 오전 8:4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유증고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코로나 중에도 교회 문 연’ 아미쉬 마을… 타 지역보다 사망 적어



아미쉬 마을 ©Unsplash/Randy Fath

각종 코로나 방역 지침을 거부해 온 미국의 한 개신교 마을에서 타 지역보다 사망자가 적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탐사전문 기자인 사릴 에티슨은 뉴스 잡지인 ‘풀 매처(Full Measure)’지에 아미쉬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식에 대해 최근 소개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에 있는 아미쉬 공동체(Amish community)는 재세례파 계통의 개신교 종파인 ‘메노나이트(Mennonite)’ 신도들이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에티슨은 아미쉬에 대해 “표면적인 것보다 정직을 강조하는 기독교 단체이자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운전과 전기 사용을 자제한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짧은 섣달 이후 아미쉬는 코로나 9가 엄청난 속도로 퍼질 만한 독특한 경로를 택했다”고 했다.

이 마을의 주민인 칼빈 랍 씨는 인터뷰에서 아미쉬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세가지가 “정부, 공교육 체계,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라고 말했다.

한 예로 그는 2020년 5월에도 아미쉬인들은 종교 행사를 위해 주민 모두가 모여 성찬식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을 주민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에도, 마을의 코로나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빈 랍 씨는 “죽는 것보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더 나쁘다. 우리에게 문을 닫고 교회에 갈 수 없거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볼 수도 없으며,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에티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첫 코로나 지역전파가 발생한 지 1년 후, 전국 뉴스 매체와 AP통신은 일제히 랭커스터 카

운티 아미쉬 마을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미쉬 주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면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민들의 유행병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 문화 연구학자인 스티브 놀트는 인터뷰에서 “아미쉬 사람들은 심지어 매우 아팠을 때에도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 그곳에 간다면 방문객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들에게는 병원에 가서 고립되는 것보다 아무리 아파도 집에 있고,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심지어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검사를 안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이 검사를 받을 경우, 불편을 느낄만한 극단적인 제한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놀트는 그러나 “봉쇄를 철저히 한 지역보다 아미쉬인들 사이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증거는 없다. 일부에서는 여기가 더 적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지역 내에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 백신 접종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지난해 장기간의 코로나 폐쇄가 없었던 탓에 아미쉬의 전체 관광 수입은 어느 해보다 증가했다고.

이에 대해 랍 씨는 “작년은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다. 역사상 최고의 해였다”고 전했다.

아미쉬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자동차, 전자제품, 전화, 컴퓨터 등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재세례파의 교리에 따라,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공교육, 의료보험을 거부하면서 전통 방식의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SBC 전 총회장

“정치적 분열이 복음의 긴박성 퇴행시켜”

미국 남침례회 전 총회장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렐리 더럼에 위치한 서밋교회를 담임하는 J.D.그리어 목사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리어 목사는 자신의 신간 ‘저서 구하라(Just Ask)’를 소개하며 성학대 및 인종갈등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남침례교단(SBC)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교단 총회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느꼈던 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치유하고 겸손해야 할 과거의 트라우마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단합되었는지에 당혹스러웠다. 정말 작은 단체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 놀랐다”면서 “그것이 언론의 잘못이든 소셜 미디어의 잘못이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평신도 남침례교인들에 대해 “항상 큰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들은 마이크(microphone)를 켜 단체들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단 내의 차이점을 얼버무리거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에서 발견한 점은 사람들이 항상 교양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인종적 화해와 다음 세대에 다가갈 준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사람들을 목회하되 인구 통계학적 재료처럼 취급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어는 미국 교회의 교회와 교단이 인종적 정의와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 및 정치적 문제로 분열된 시기 중에 복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미 남침례회 전 총회장 J.D. 그리어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강조했다.

그리어는 “우리의 적은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복음의 긴박성을 줄이고자 애쓰고 있다. 우리에게 영원(eternity)이 실제한다는 것과, 모든 인간은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려는 것”이라며 “세상의 다른 모든 사회적인 것은 그 메시지의 긴박성에 비하면 시들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부담은 정치적 해결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정치적 해결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정치, 좋은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나는 그것들이 모두 복음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화해시키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테네시 주지사, 취임 후 세 번째 '기도·금식·겸손의 날' 선포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취임 3년을 맞은 미국 테네시 주지사가 전역에 걸쳐 기도와 금식과 겸손을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저는 11일을 기도와 금식의 날로 바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모든 테네시 주민들을 (아내)마리아와 나와 함께 하도록 초대한다.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축복을 인정하고, 우리 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앞으로의 날을 위한 치유와 은혜, 자비를 구하자"고 말했다.

이는 2019년에 취임한 빌 리 주지사가 세 번째로 선언한 기도와 금식의 날이다. 이날 선언문에 서명한 빌 리 주지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즉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많은 죄악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성경에 이르기까지 지혜의 근본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며, 주님은 당신께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네시 주민들이 우리의 풍성한 축복과 깊은 잘못, 앞으로의 복잡한 도전, 그리고 잠시 멈춰서 자신을 낮

추고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 나,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자발적으로 2021년 10월 11일을 테네시 주의 '기도, 겸손, 금식의 날'로 선포한다. 모든 시민들이 저와 함께 이 가치 있는 기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빌 리 주지사는 작년 7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시기인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주지사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대해 "이 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낙태 반대법"임을 밝히며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소중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에는, 테네시 주 하원에서 성경을 '공식적인 주정부 서적'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이 55대 28의 표차로 통과되어 화제를 불러 모았다.

결의안에 따르면, 20세기 이전 테네시 주 전역의 가정에서 발견된 성경에서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한 기록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주 경제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이 널리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

"성경적 교회의 12가지 특징은..."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가 18일부터 이를 일정으로 '2021 글로벌 로드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교회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이번 컨퍼런스는 수영로교회와 미국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영됐다.

18일 첫날에는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백클린바이블 교회)가 '총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라'라는 주제로, 이어 이규현 목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는 "성경적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말하면 먼저,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회가 된다. 둘째는 성경적 기도이다. 성도들은 기도 전에 헌신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해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를 인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크게 전파되었다"고 했다.

이어 "셋째는 성경적 전도이다. 성경적 교회는 매주 함께 모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흠뻑서서 복음을 전파한다"며 "우리 지역사회에 매일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넷째는 성경적 제자도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결정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다섯째는 성경적 지체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존재하는 지체로 모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섯째는 성경적 리더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길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할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며 "일곱째는 성경적 예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성경적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모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덟째는 성경적 규례로, 성경적

의식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세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의 예배 생활의 규례"라며 "이것은 아름다운 성경적 전교로 우리를 인도한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곳,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또한 열 번째는 성경적 책임과 규율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여 죄에서 서로를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한 번째는 성경적 헌금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헌금을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설계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마지막 열두 번째는 성경적 선교이다. 성경적 사명은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교회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이규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목회적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먼저, 제도적 교회에서 영성의 교회 목회로 전환해야 한다. 유기적 관계가 더 중요시 되었다"며 "전통의 교회들은 형식화 되고 경직되어 있다. 이것으로는 현 시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적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일 큰 문제는 다음세대이다. 다음세대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부모세대와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이며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려는 유혹을 극복하여 도전하고 모험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변화에 민감하여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회복력이 있음을 말한다. 이 회복력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j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족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6:30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생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번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You Tube

전 세계 인구 약 83%, 자유 제한된 국가에 거주

영국 기독교인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종교자유특사인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의원은 보수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 세계 인구 중 약 83%가 신념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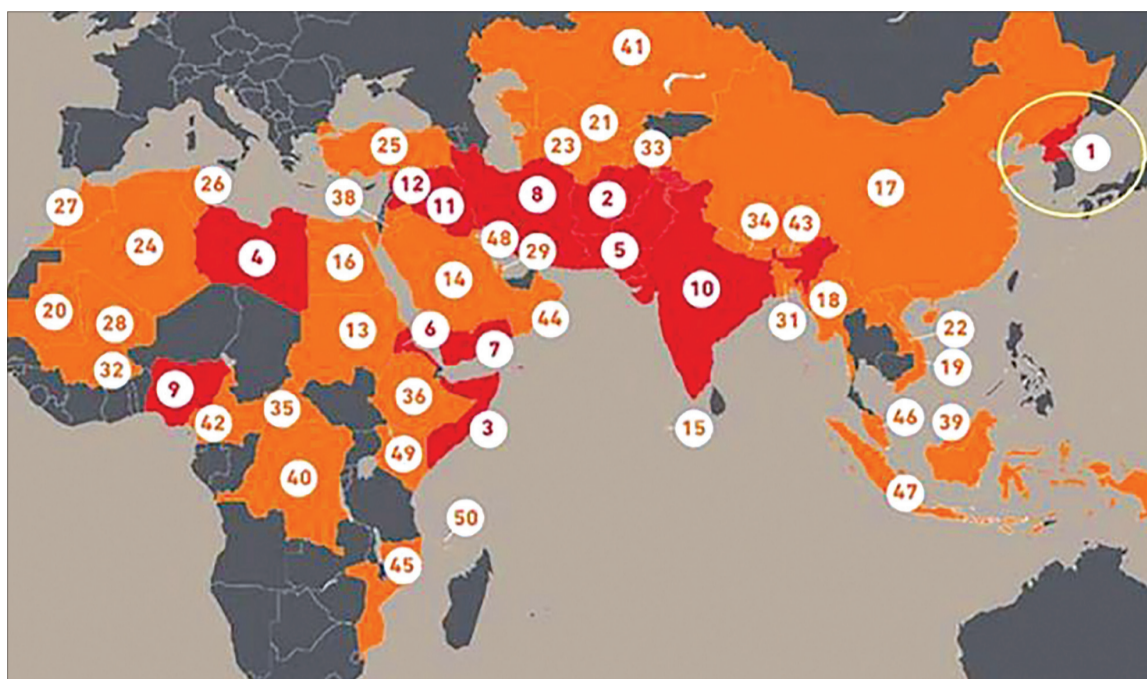
이어 “21세기에 이 정도는 대부분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엄청나서 믿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놀랍지만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며 “외무부 직원들의 종교적 문해 수준을 개선하고 영국이 전 세계 정부에 특정 학대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더 대담하고 용감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브루스 의원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핵심 인권 우선순위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외교적인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수년 간의 옹호 끝에 파키스탄에서 석방된 기독교여성 아시아 비비를 예로 들었다.

브루스 의원은 “캠페인이 필요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참여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영국의 소프트 파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박해 국가 50위. 아시아와 아프리카 10/40창에 집중돼 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다.

위를 과소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브루스 의원은 오는 2022년 7월 영국에서 주최할 종교자유에 관한 장관회의의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모범 사례와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브루스 의원은 영국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돌리면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박해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연사를 초대하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전국 교회들 사이에서 여전히 제한적인 인식이 있다”라며 “기독교인들은 또한 자신의 지역구 하원의원에게 요청해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국

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위한 초당적 의원 그룹’(APPG ForRB)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루스 의원은 보수 기독교인 펠로우십(Conservative Christian Fellowship)과 SAT-7이 주한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RB) 행사에 참석한 여러 연사 중 한 명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한 무슬림 남성으로부터 탈출한 후 가족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는 파키스탄의 십대 마리아 사바즈(Maria Shahbaz)와 같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곤경에 대해 논의됐다. 또 다른 기독교인 십대인 레아 샤리부(Leah Sharibu)가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

람(Boko Haram)에 의해 학교에서 납치되어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었던 사건이 소개되었다.

이슬람국가(ISIS)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지디족 여성 2천7백명과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설립자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크리스천들은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라며 “문제는 엄청나지만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어

른 모든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른 무엇과 별개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이것을 할 때 선교적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옹호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희석시키지도 않고 일종의 혼합주의자로 만들지도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라고 했다.

안젤로스 런던 콤포트 대주교는 박해받는 공동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번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볼 때,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기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으로 ‘생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공급이나 자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번영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생존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수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코로나19 서서히 물러나면서 英 교회에 많은 기회”

자유교회 오스굿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에서 강연

영국교회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염병이 서서히 물러나면서 많은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10월 1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Evangelical Summit’의 강연자로 나선 자유교회(Free Churches) 오스굿 목사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큰 도전이 있었지만, 교회는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일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스굿 목사는 “어쨌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가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싶어하신다. 어떻게든 그 단단한 땅은 우리가 겪은 일로 인해 깨어지고 있다. 방법과 이유도 잘 모르지만,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싶다”고 했다.

복음 변증 세션에서 기독교 변증가인 에이미 오르 유잉 박사는 “소

셜미디어와 AI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어에 참여하기보다 쉽게 자신의 ‘반향실’로 후퇴하게 만든다”며 “현 시대의 반향실을 파괴하고, 반향실로 후퇴하려는 유혹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반향실 효과’란 특정한 정보에 갇혀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이는 다음 세대에 도달하기 위한 엄청난 도전이다. 우리는 현명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영적 분위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지칠 수 있고, 국가와 교회의 상태, 정체성에 대한 재앙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낙심한 때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난 정말 예수를 믿는가’ 다시 묻고 싶다. 우리의 인격적인 미움이 성장하고 쌓이도록 그분께 간구하자”고 했다.

오르 오잉 박사는 “도전은 현재



휴 오스굿 목사가 지난 10월 1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전도회의에 참석해 수백 명의 스코틀랜드 목회자와 전도자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BGEA

이 시대에 복음을 수호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포스트포더니즘이 남긴 의미의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이를 위해 싸울 때, 우리 자신의 반향실 밖에서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스굿 목사는 C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도집회가 대면 모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영국이 전염병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적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팬데믹으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교회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목회에서 물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전하고 싶겠지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BGEA 전도회의를 주관한 영국의 로저 칠버스 전도사는 교회가 보다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칠버스 전도사는 “과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꺼렸다. 코로나19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고 담대히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 ‘당항스러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목회에서 물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전하고 싶겠지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된 유전자로 새 사람 만들기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물의 몸속에서 배양하는 실험을 하여,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혼합된 키메라가 생기는 놀라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실제 사건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유전자 편집회의”에서 있었던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허젠쿠이 교수는 유전자 가위기술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교정한 쌍둥이 아이가 탄생했다”는 발표를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허 교수는 에이즈에 대한 특별한 면역을 가지도록 유전자를 생명공학 기술로 교정하여 맞춤형 아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국제과학회와 전문가들은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유전자 아기의 후폭풍이 지속되자, 중국 광둥성 정부는 허 교수를 대학에서 해고하고 관련 연구를 전면 중단시키고 공간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많은 우수한 세계적인 교수들과 윤리학자들이 모여 유전자 편집기술을 규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정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논의하였으며, 모든 국가가 인간 배아 편집의 임상 허용을 절대 금지하도록 공개 선언하여야 함을 논의하고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생명들이 섞이거나 혼잡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으며, 더구나 다른 종류의 생명들이 교잡하여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유전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개와 소와 말의 유전자는 다릅니다. 말과 사람의 유전자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종 동물은 교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나누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사람이 발전시킨 과학의 힘, 유전자 조합기술의 능력을 통하여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새 생명의 창조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만물의 독특성을 인간이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윤리적 가능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교만한 인간이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며, 따먹지 말아야 할 급단의 열매를 범하는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키메라라는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의 머리와 염소의 머리 및 뿔을 가졌고, 꼬리는 뱀의 머리가 있는 기괴한 짐승입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켈타우르스라는 반인반마(半人半馬) 형상의 존재도 나옵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의 모양을 한 기괴한 동물입니다. 신화 속의 켈타우르스는 탐욕적인 특성을 가졌는데,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납치한 결과로 남편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현재에 이르러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업적은 이제 동물과 다른 동물의 특성을 함께 가진 잡종을 만들거나,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섞어 만든 기이한 동물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이식이 시급한 상황, 즉 필요한 장기의 약 10분의 1정도만 공급되는 상황에서, 동물의 내장 속에 인간의 장기를 배양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인간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염색체를 주입시켜 동

죽음과 영생,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로 감탄스럽고 획기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분명히 만날 너무나 중요한 죽음과 영생으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사망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누고, 카인과 아벨이 미움으로 나누어 동생을 죽였습니다. 언제나 선악으로 정죄하므로 주변사람들을 죄인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바리새인 같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정죄하여 죽게 만드는 선악과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반대말이 복음이고 은혜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는 결국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나이와 전쟁과 죽음도 다 생명을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이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뿐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는 ‘부름’과, 구원 받은 내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생 얻는 구원보다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생의 삶을 맞이할 것인가를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붙들고 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 한국 내 대표건설사 4곳을 불렀습니다. 건설사마다 어떻게 하면 수주를 받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개의 건설사는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상습 침수구역 중 소양강댐이 건설되면 침수 되지 않을 지역을 찾았습니다. 어차피 상습 침수구역이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이었기에 그곳의 땅을 싸게 샀는데 그 땅이 압구정입니다. 지금 서울의 가장 비싼 땅이 된 압구정엔 H건설사의 백화점이 있고 소유지도 많다고 합니다. 남들이 댐 공사만 생각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한 단계 더 멀리 봄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뭇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물이 된다고 했는데, 한 명이 대답하길 ‘봄이 온다.’고 하는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남들보다 한단계, 한걸음 더 앞서서 생각하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성원 목사

나는 단지 밥이나 얻어먹고 내일 농장에 돌아갈 요량인데 이들은 내가 무슨 자유의 투사나 되는 줄로 여기고 반색을 하니 가소로웠다. 벌써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사랑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에만 몰두하는 나의 심보도 모르는 그들에게 나는 만일 내가 싫다면 어쩔 셈이나고 묻자 그들은 당신은 절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은근히 부아가 나서

만일 거절하면 나를 죽이더라도 할 셈이나고 따져 묻자, 그들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일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소.”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했다.

“난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소.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정체를 밝히시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영혼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나는 또 그 말도 이해할 수 없어 당신들이 의사냐고 물으니 그들은 명의들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 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다.

“이 간나 새끼들, 병방 말 돌리지 말고 당신네들의 정체를 밝히려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

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급기야 화를 냈으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기꾼 같은 말과는 다른 그들의 진실한 표정에 몹시 혼란스러운 내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이 사실을 인민에게 알려 죽어 가는 그들을 살려 내야 한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 그만이지 않냐고 하니, 그들은 그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죽음을 그토록 무서워하면서 민생단 투쟁을 하느냐고 하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도시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이 막강한 당신이 앞으로 조직할 기도회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오.”

이건 또 무슨 뚱뚱지같은 소리인가. 구세주니 영혼이니 생명이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조합하는 것도 힘에 겨운 마당에 나더러 뭘 책

임지라는 말인가? 하지만 나도 당의 가시 같은 사랑에 버림을 받아 농촌 구석에 처박혀 있던 터라 하나님 나라의 간부가 되라는 말이 싫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를 반동의 수장이라는 간판을 목에 걸어 주고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들은 쏙 빠지고 나만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극락에 갔다 왔다는 운전사가 전해 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이 자처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그 여부를 가리지는 맙시다.”

그들이 하는 말마다 어안이 병병해졌다. 사실 그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일’을 들먹거리며 단호하게 거절하자니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이 간나 새끼, 360도 돌기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예 목을 쳐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며 호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트랙터의 360도 사건 이후 트랙터만 보면 운몸이 굳어지면서 그날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무엇보다 내게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런 내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조직의 책임자로 세우기로 뜻을 세웠다고 하니 더욱 같음이 되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신들과 같은 적색분자라고 확신한다면 이 산골 도시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말해 주었다. 세상에, 이 작은 산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색분자였다니,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운전사의 예언대로, 또 그들의 예언대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모두 겪고 나서야 내가 자처해서 기도회의 책임자가 되었다. (계속)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그리스도의 향기를(2)

고린도후서 2:12-16



서울성모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2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13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지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14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2.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전에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에 어느 교회에 최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완벽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도 철저히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돈을 벌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답니다. 아내는 믿음으로 살면서 동반자를 만나 짝을 이루었는데 아이들 낳고 살면서 남편도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교회회기만 꺼내면 밥상을 뒤집어 엮고 아내를 쥐잡듯 두들겨 쳤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자기를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이토록 모든 것을 참아가며 자기를 위해 성질도 죽이고 비위도 맞추며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토록 개패듯 패고 밥상을 뒤집어 엮고 할 수가 있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안중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걸리든가 비참하게 되어 죽을 거야. 두고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의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벌이한 돈도 가져다주지 않고 도박도 하면서 그 가정은 더욱더 생지옥이 되어갔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대로,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해주고 심하게 대하면 심하게 대했습니다. 이때까지 이 아내는 교회는 다니면서 천국복음을 들었고 천국에 갈 기대도 컸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 시간에 첫 날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자기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하나님을 헛믿고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마귀의 악취를 풍김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이 자기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루는 부흥회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날도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고 12시가 넘었는데

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들어오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손에 들고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칼을 쥐고 잠이든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붙들어 기도하게 하셨다고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이 그동안 원수 같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토록 붙잡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칼을 치우고 남편의 손을 모아 잡고 머리를 감싸 안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잠이 깬 남편이 그간 남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해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편이 지금까지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남편도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일들을 서로 자신의 탓이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부가 새로 만난 것처럼 인격적 결합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부가 남은 부흥회를 함께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풍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내게서 예수님만 돋보여지게 했던 폴리갑의 순교처럼, 온전히 예수님의 심장으로 남편을 바라봄으로 가정천국을 이룬 최집사님처럼 내세소망을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주고 회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환란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

6.25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들이 들이 닦쳤습니다. 종탑위의 십자가를 부수고 강단위의 십자가도 떼어내고 성경책, 찬송가를 짓밟고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새끼줄로 모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부터 불러 세워놓고 총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는 거 그만두지 그래.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놔둬 버릴 거야"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을 다른 곳에 묶어놓고 다음으로 장로를 불러내어 똑같이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장로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을 한명씩 불러내어 질문을 했지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강단에 걸었던 십자가를 바다에 놓고 그 위에 울

라가서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고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는 말에 목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예수를 믿겠는지 아니 믿겠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 당신들 손에 죽는 다해도 나와 예수님 관계는 절대로 떼어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교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함께하던 또 다른 청년 한 명도 담대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인민군들이 이 둘은 당장에 죽어야한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인민군 한 명이 "대장님, 이 두 놈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래 골짜기로 데려가서 무덤을 파게해서 그곳에서 두 놈을 썩히고 오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은 죽을 자리로 끌려갑니다. 산등성이를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그 인민군이 "나도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당신들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이길로 내려가면 임진강이 나오는데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남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서든 다시 만날 것이다"고 말하고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것을 신호로 이들은 달아나서 숨었다가 어둠기를 기다려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인민군들의 보급품을 나르다가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청년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청년들을 살려준 그 인민군도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훗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어진 하나님의 생생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고후2:14)

지금은 끝장이 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못하게 생생사역으로 써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살길로 인도하시게 하셔서 기어코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14~15)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못해 전하듯 약하게 전달하지 말고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죄 값에 비참하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당신에게 정성을 들여 야끼고 보살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옥까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애타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 좇아 지옥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 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생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 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7시30분
		FM91.5(SCA)	금요일 오후
		AM1650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숲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광화문 국민 미주대회
대한민국을 지키자

전광훈 목사 초청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10.23

오후 3시

가든 스위트 호텔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존경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협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미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해양자유 동맹을 깨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공산 대륙 동맹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대리인으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미군 철수의 조건을 만들어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려 합니다.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뉴욕과 남가주에서 광화문 국민 미주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 전광훈 목사 -

주 최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 미주한인재단 LA
미주 청교도 영성 훈련원 /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

참가단체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 남가주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 미주 애국동지연맹
N.K.I.A (North Koreans in America) 탈북자 선교회 / 한미 기독 법무사무소
남가주 이복오도민협의회 / 일천만 이산가족 위원회 LA / 광명교회 / 나눔장로교회 / 하늘문교회
텍사스 한미애국기독인 연합회 / 텍사스 한미애국교회

문의전화 310.404.6219 김영구 목사 | 714.404.2200 모니카 선교사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일예배, 교회학교, 마크업소, 목회자료, 목회용품, 목회용품, 목회용품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일관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한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세계 1위 오른 <오징어 게임> (下)

오징어 게임, 기독교 비하하려다 개연성과 캐릭터 매력 반감

오징어 게임 흥행 요인, PC 강박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각 캐릭터 문제점 시청자 관점에서 자유롭게 해석 가능 데스게임 특유의 극한 타락, 비참가자 목회자에게 적용 서사의 개연성과 충실함에서 간과할 수 없는 약점 남겨

◆데스게임의 강점: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인격 타락의 최저치

<오징어 게임>의 범세계적인 인기가 언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일본 데스게임의 핵심 요소들을 차용한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능숙한 연출과 대중성 있는 서사를 무기삼아 예상치 못한 흥행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흥행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영미권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및 디즈니 콘텐츠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넷플릭스와 디즈니 콘텐츠 서사에 거의 강박적으로 반영되고 있던 정치적 올바름(PC) 성향에서 자유로운 콘텐츠에 대한 열망은 <오징어 게임>에 쏠리는 인기를 견인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오징어 게임> 안에도 곳곳에 정치적 올바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미권 영화나 TV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다.

정치적 올바름 이념에 좌우되는 작품들의 특징은 서사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일관되게 권선징악형 어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선(善)'이라고 말할 때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함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지극히 방만하고 환상적인 자유 및 평등 이념을 말한다. 그래서 다소 일반적으로 교훈적이고 교육적이다. 특정 사상을 반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이런 고고한 태도가 지나치면 시청자들은 피로감과 반감을 느낀다. 반면 <오징어 게임>은 극히 일부 장면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교조적인

태도로 서사를 풀어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시청자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저 캐릭터는 뭐가 잘못이고, 이 캐릭터는 뭐가 문제인지 시청자 각각의 관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각 캐릭터가 작품 내에서 갖는 역할과 그 평가 방향이 미리 확고하고 '올바르게' 정해져 있는 최근의 영미권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청 포인트이다.

이는 데스게임을 주요 소재로 삼은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강점이다.

데스게임의 최고 흥미요소는 인간이 생존과 자기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데스게임 참가자들이 시시각각 보여주는 타락의 향연은 다른 장르의 작품에서는 커다란 볼레감이지만, 데스게임 장르 작품에서는 악의적 카타르시스의 원천이다.

다만 일본 데스게임 작품들이 특유의 극단적이고 변태적인 잔혹함을 내세워 대중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달리, <오징어 게임>은 잔혹함의 표현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추고 캐릭터의 심리상태 묘사에 집중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했다.

결론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최근 대세가 된 정치적 올바름 성향 콘텐츠의 약점과 데스게임 장르의 약점을 영리하게 회피하여 원래 대중성이 약했던 데스게임 콘텐츠를 세계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약점: 비현실적 선량함과 편향적 기독교 비하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이런 영리함과 강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큰 약점을 갖고 있고, 그런 점이 작품의 흥미와 몰입도를 감쇄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약점은 주요 캐릭터들이 가끔 말도 안될 만큼 과도하게 내비치는 선량함이다. 게임이 진행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잠자는 시간까지도 서로 칼부림을 하고 죽어대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목숨이 즉각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부 등장인물이 교과서적인 선량함을 내비치는 기묘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 소위 소수자, 약자들의 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정이 많고 남을 잘 믿는 다소 어리숙한 성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알리(아누팜 트리파티 분)는 자신을 친근하게 잘 챙겨줬던 상우(박해수)의 애달픈 숙임수에 넘어가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한다.

지영(이유미 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새벽(정호연 분)이 마음에 든다며 자기의 괴로운 과거를 이유로 아주 손쉽게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다. 이는 <오징어 게임>이 영미권 작품들보다는 덜하지만, 그 역시 정치적 올바름의 이념을 약하게나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등 소수자와 약자들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캐릭터가 갖는 현실적 면모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특정한 윤리적 교훈을 던져주려는 의도는, 서사의 개연성을 떨어뜨리고 그 재미까지 감퇴시킨다.

두 번째 약점은 데스게임 장르 콘텐츠 특유의 강점, 즉 인간 타락의 최저치 보여주기를 데스게임 참가

자들을 넘어 비참가자, 특히 기독교 목회자에게 편파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데스게임 장르 작품의 묘미는 원래 사회에서 비록 무능력하고 어수룩하지만 선량한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극한 상황에서 심하게 이기적이고 악독한 성격으로 돌변하려는 유혹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데 있다.

거의 대부분 참가자는 이런 유혹에 무너져 내린다. 주인공을 비롯한 극소수의 참가자만 그 유혹을 힘겹게 이겨내지만, 이런 위대한 선택과 상관없이 주위는 이미 죽고 죽이는 처참한 죄악의 현장으로 돌변해 있다.

생존과 이익을 두고 인간 개개인과 집단이 공히 보여주는 이 인간성의 저열함은 그것이 지닌 현실성 때문에 시청자에게 특별한 종류의 카타르시스를 전한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이런 데스게임 고유의 서사 기법을 게임 바깥의 목회자에게 적용한다. 이는 특정 종교를 표적삼아 악의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도가 데스게임 자체에 집중되어야 할 서사를 셋길로 빼지게 함으로써, 지영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크게 감퇴시키고 있다. 지영 역시 생존게임 참가자로서 생존을 향한 극단적 욕구를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런데 이런 처지를 자살이라는 방편으로 아주 손쉽게 벗어난다. 그리고 그 근거를 게임 외부에 타락한 목회자,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렴치한 거짓 기독교인으로부터 얻은 불행과 상처에 둔다.

기독교 비하를 위해 서사의 강점을 포기하고, 매력적일 수 있었던 하나의 캐릭터를 별로 남들되지 않게, 허무하게 소비해 버린다.

1번 참가자 일남(오영수 분)의 경우는 기훈(이정재 분)을 위해 게임

에서 저주는 데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스스로가 게임 설계자이자 모든 음모의 흑막인 만큼, 구슬치기 게임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를 남들을 속이며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퇴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영을 둘러싼 서사는 그만한 설득력이 없고, 서사를 풀어가 는 기법 측면에서도 서투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오징어 게임>은 지금보다 더 대단한 작품이 될 수도 있었다. 현재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이 큰 호응을 얻는 데는 서사 자체의 힘보다 이 작품의 설정이 갖는 매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홍보하는 방식,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만일 <오징어 게임>의 서사의 매력이 압도적이었다면 감독과 배우들의 해외 활동이 드라마 홍보의 주된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나 해외 시청자들 모두 <오징어 게임>의 서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품에 등장하는 게임, 도구, 복장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이는 서사의 치밀함이 설정이 주는 흥미의 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오징어 게임>의 서사에 보이는 약점은 데스게임 장르의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정치적 올바름 이념 변호와 기독교 목회자에 대한 편향적 비하를 위해 감퇴시켜 버린 처사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징어 게임>은 서사의 개연성과 충실함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약점을 남긴 아쉬운 작품이 되고 말았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데스게임 장르의 약한 대중성 문제를 영리하게 극복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 분야**
 - 찬양팀 건반 반주자
 - 중고등부 전도사
- 파트타임**
- 연락처**

626-793-0880
dreamchurchresume@gmail.com



J.C.C.C. SEARCHING FOR TWO PART-TIME PASTORS

CLICK MORE INFO

기쁜우리교회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 파트타임 청빙

- 1. YOUTH MINISTRY**
- 2. CHILDREN'S MINISTRY**

- 1. Qualifications**
 - 1) A student or graduate from an accredited theological seminary.
 - 2) Ability to speak English fluently (Bilinguality is preferred, but not required)
 - 3) Previou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not required)
- 2. Required documents**
 - 1) Resume (in English, with personal photo, family photo preferred if married)
 - 2) Personal Statement (in English, including faith journey)
 - 3) Ministry Vision Statement (in English)
 - 4) Proof of Student Attendance or Diploma
 - 5)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preferred from a pastor)
- 3. Contact Us**

search@joyfulccc.org




www.openstewardship.com

우리 함께 -

손 잡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1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접수기간

2021년 10월 15일 - 2021년 11월 24일

수혜단체 발표

2022년 2월 24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